

안개 숲

유 화 운(시인)

명확한 것은 없다
구리공이 된 저녁 해
부영계 부유하는 모호함
숲엔 아무도 없었다
밑동을 잃은 나뭇가지들이
안개 속을 떠다녔다
신(神)도 없었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자유만이 있었다
그러나 길이 없었다
가슴만 회색에 잠겼다

안개는 지표면 가까이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김처럼 부영계 떠 있는 것이다. 그런 현상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어떤 예정도 없이 그런 현실에 놓였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부영계 가려진 시야를 갖고는 명확한 것 없어, 당황스럽기 만한 무인도나 다름없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막막함에 싸일 것이다.

명확한 것 하나 없는 지역을 탐구하는 탐험가가 되고 만다. 밑동을 잃은 나뭇가지들이 안개 속을 떠다녔다고 했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자유만이 있었다고 했다. 그야말로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객쩍게 허튼 짓을 하고 싶지도 않은 무욕구상태로 허우적거릴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회색지대다.

길이라도 있으면 무어라도 찾아보겠지만 우물 안에 비치는 희미한 음영을 바라보면서 외로워하고 그리워하는 맹목적 생명체로 남는다. 현대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낯설게하기나 아이러니가 질게 깔린 새로움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관심을 끌게 하는, 현실을 도피하려는 현대인의 내면의식의 흐름을 심도 있게 묘사하고 있다.(윤 제 철)

참새 잡기

조 홍 제(수필가)

외가에는 집 뒤에 나무 울타리가 있어서 참새가 많았다. 참새는 여름에 나무나 풀 숲에 집을 짓고 살지만 겨울에는 사람 집에 와서 집세도 안 내고 공짜로 산다. 그 때 지붕은 벗짚을 엮어서 두껍게 덮었기 때문에 그 속은 따뜻했던지 추녀 끝에는 구멍이 뿡뿡 뚫려 있었는데 그게 참새들이 사는 집이었다.

청년들은 밤에 사랑방에 모여서 놀다가 출출하면 주막에 가서 막걸리를 주전자에 받아 오고 일부는 참새를 잡으러 간다.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 가 참새를 잡았다. 구멍에 손을 넣으면 보드랍고 따뜻한 털이 손끝에서 움직였다. 끄집어내면 참새였지만, 가끔은 구렁이도 끌려 나왔다는 어른들 말씀이었다. 구렁이는 굼벵이를 잡아먹으려고 지붕으로 올라 가 살면서 아울러 참새까지 넘본다. 구렁이는 독이 없다. 한 집에서 사람과 참새와 굼벵이, 구렁이가 함께 살았으니 지금 어린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기절초풍 할 일이다. 그때 사람들은 구렁이가 ‘업(행운을 가져다주는 생물)’이라고 여겨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눈이 많이 온 날은 대문 옆 헛간에 커다란 멧방석을 펴 놓고 그 밑에 쌀을 뿌려 놓았다. 한 쪽을 부지깥이로 고이고 새끼줄을 묶어 길게 늘어 방안에서 붙잡고 창호지문에 대고 바른 손바닥만 한 유리로 내다본다.

지루하리만치 내다보고 있으면 참새들은 ‘눈 덮인 겨울에 이게 웬 떡이냐’는 듯 제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맛있게 식사를 한다. 방안의 눈은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를 기다려 새끼줄을 짊싸게 잡아채고는 뛰어 나가 밟는다. 움직임이 멈추었을 때 들추어 보면 참새의 주검이 그득하다. 털을 뜯고 화롯불에 구워 먹으면 아작 아작하니 얇은맛이 있었다. 뼈째 다져서 만두 속에도 넣었는데 참새만두를 최고로 쳤다.

참새가 소 등에 앉아 콩지를 까불까불 하면서
“ 짹, 네 고기 열점이 내 고기 한 점만 하나”
고 하면 소는 히죽 웃으면서 올려다보고
“ 너는 제사상에 올라 가냐, 나는 제상에 올라앉는다.”
고 응수 한다. 그만큼 참새고기가 맛 있다는 비유다.

전문가들은 참새를 새 그물을 쳐서 잡았다. 새 그물은 머리칼같이 가는 실로 만들었는데 엄청 컸다. 너비 20m, 세로 5m는 되는 것 같다. 새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치고 숲에서 소리지르고 쾅과리 치면 새들은 떼를 쳐서 도망 가다가 그물에 걸린다. 그물에 걸린 모양은 목이 그물에 드러가고 몸둥이는 대롱대롱 매달린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 십마리가 걸리면 동네 아이들도 신 나서 몰이에 동참한다.

그 외 새총으로도 잡는다. 산탄총인데 참새가 많이 있는 데다 새총을 쏘면 수십 발이 나가 몇 마리는 떨어졌다. 우리들은 고무총으로 잡았다. Y자로 생긴 나무 양쪽 위에 고무줄을 매고 고무줄에 조그만 가죽을 대고 양쪽 고무줄을 묶는다. 공기 돌만한 돌을 가죽에 넣고 새가 있는 곳에 대고 고무줄을 늘였다 놓으면 돌이 날아가 새가 맞으면 털이 날리면서 새가 포르르 땅으로 내려 앉는다. 그러면 쩍사게 뛰어 가 잡아야지 조금만 꾸물거리면 날아 간다. 다른 친구들은 잡았는데 나는 둔해서인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우리들도 외가에서 매방석을 퍼 놓고 그렇게 참새를 잡아 만두를 해 먹었다. 만두 속에 넣는 고기는 첫째가 참새 고기, 둘째가 꿩 고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서열에서 뒤진다.